

신년사



정상훈

- 月刊「考試界」발행인
- 도서출판 고시계사·미디어북 대표
- 법무경영교육원 원장
- 한국잡지협회 정관개정위원장
-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교육지원재단 지원의장

균형 잡힌 정책을 바라며

이제 2018년도 한 장 남은 달력을 가만히 쳐다보며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본다. 마지막 달력의 며칠만 더 지나면 새로운 해의 己亥年을 희망차게 맞이하게 된다.

『어서 잊을 건 잊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그리운 이들을 만나야겠어요... 아름다운 삶을 오늘이 마지막인 듯이 충실히 살다보면 첫 새벽의 기쁨이 새해에도 우리 길을 밝혀 주겠지요』이해인 수녀님의 送年の 詩에 나오는 구절이다.

대부분 우리네의 평범한 사람들은 한 해를 마감하면서 후회와 반성이 대부분이고, 잘하였거나 행복했던 기억들은 별로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모두들 이 혼란의 시대를 지혜롭게 넘어가는 해안과 좌고우면하지 않는 나름대로의 소신으로 당당하고 멋있게 살고 싶었는데, 이루지 못한 소망에 대한 아쉬움만이 가득했던 한 해였던 것 같다. 이런 것들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평범한 일상의 보통 사람들의 일과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 사법부는 최악의 수모를 겪고 있다. ‘사법농단 및 재판거래 의혹’을 규명한다며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고 전·현직 관사들이 잇달아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고 있다. 이런 와중에 신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 진보성향 판사들의 사적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인사들로 줄줄이 교체되고 있다. 이번 사법과동이 어떤 형태로 마무리되더라도 이제 법원의 판결은 ‘코드 시비’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법원 게시판에는 ‘재판은 곧 정치’라는 주장을 펼치는 법조인들도 많이 있다. 민사재판에 졌다고 양심을 품은 노인이 대법원장이 탄 차량에 화병병을 던지는 사건이 있었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대검찰청 민원실을 불법적으로 점거하는 일도 있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이미 폭력이 법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국법치의 아프고 부끄러운 상징적 장면들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처음으로 50% 선이 무너졌다. 지난 몇 달전에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52.9%를 기록했던 지지율이 최근의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9%까지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까지 왔다. 내년에도 우리나라의 경제는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많은 경제분석가들의 한결같은 진단이고 많은 소상공인이 문 닫을 위기에 있고, 물가는 치솟고, 청년 취직은 안 되고, 미래는 어둡고 참담한 상황이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의 틀을 닦은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마저도 제조업 가동률 부진 문제를 지적하며 “한국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신봉하는 ‘소득주도성장’은 맞지 않다고들 주장한다. 성장 없이 분배가 가능할 리 없고, 저소득자의 임금뿐만 아니라 고소득자의 임금도 함께 늘어나는 성장이 진정한 성장이라는 논리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부의 경제정책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을 펴고 있다. 그런데 더 한심한 것은 경제가 이토록 나빠지는 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너무 서두르고 북한지원에만 몰두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부패정권 심판은 열정과 정의감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경제는 물론이고 외교와 안보는 노련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와 여권의 정권 핵심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지난 65여년 간 창간 이래 애독자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를 이끌 어갈 동량을 키워내는데 일조하겠다는 당사의 설립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해보며, 앞으로도 변호사시험, 5급 공채(행정고등고시), 입법고등고시, 법원행정고등고시, 다양한 법률소식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동행이 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아무쪼록 己亥年 새해에는 큰 꿈을 향해 뛰어 목적을 달성하는 여러분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으며, 맥내에 건강과 평강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